

## 退溪先生の 風流

李 東 英\*

일찌기 爲堂 鄭寅普는 「風流說」<sup>1)</sup>一文을 썼는데, 최초 '風流'의 기록을 崔孤雲의 「鸞郎碑序」에서 인용하여 보았다.

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이르되 風流라. 실은 三教를 포함하여 群生을 接化함이니 집에 들어서는 孝를 다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忠誠되라 함은 魯司寇(孔子)의 뜻이요, 無爲한 일에 處하여 말 없는 教를 행함은 周柱史(老子)의 宗이요, 모든 惡을 짓지 말고 모든 善을 만들어 행하라 함은 竺乾太子(釋迦)의 教化이다.<sup>2)</sup>

위의 글에서 가장 증대한 '風流' 두 자가 한 疑的으로서 여러가지 해석의 화살을 야릇하게 드퓌고는 있으나 '風流'를 「玄妙之道」에서 찾을 것이라 했다. 이 '玄妙之道'는 곧 新羅 때 花郎의 道이니 '風流'의 입자와 '花郎'의 道는 分論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金富軾이 「三國史記」에 源花·花郎의 始作되던 대개를 쓰되

三十七年 봄 비로소 源花를 받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임금이나 신하가 모두 사람을 알 수 없음을 고민하다가 끼리끼리 떼지어 놀게하고 그 속에서 행동을 관찰하여 뽑아 쓸 양으로 美女 두 사람을 간택하니 곧 南毛와 俊貞 두 사람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徒衆이 3백여명이 모였다. 두 여인이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마침내 徒衆을 화목을 상실하여 해산되었다.

그뒤 다시 미모의 남자를 데려다가 곱게 꾸며 花郎이라 칭하고 그들을 받

\* 釜山大學校 國語教育科 教授

- 1) 鄭寅普, 「菴園鄭寅普全集」(1), 「風流說」, 延世大學校出版部刊, 1983, p. 253
- 2)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三國史記」眞興王37年條)

## 2 韓國文學論叢 第12輯

들게 하니 徒衆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혹은 道義로써 연마하고 혹은 歌樂으로써 즐기며 山水를 유람하여 먼 곳에까지 안 가는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正邪를 알고 착한 사람을 뽑아 조정에 천거하였다.<sup>3)</sup>

라고 하였다. 花郎의 하는 일은 道義의 相磨와 歌樂의 相悅과 山水遊娛로 어디든지 다니는 것에서 孕育 鍛鍊되는 것은 장차 大新羅의 朝廷에 오를만한 善者로 이른바 賢佐며 忠臣이며 良將이며 勇卒의 교육이었다. 이점에 鄭寅普는 ‘道義는 숨은 것이며 遊樂을 첫째 생각하여 둘 것일 듯하여……花郎의 하는 일이 風流와 만 것이 아닐 것이다’<sup>4)</sup>하고 花郎의 하는 일로는 遊樂이 가장 중요되는 것이니 風流와 遊樂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자 했다.

「風流」를 사전에 찾아보면 ①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② 운치가 있는 일 ③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이 있고, ‘風流客’이니 ‘風流男子’이니 ‘풍류놀이’가 있다. 다음에 「멋」의 설명을 보면 ① 풍치있는 맛 ② 호탕한 기상 ③ 사물의 참 맛이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옛사람은 ‘風流’라 하고 지금 사람은 ‘멋’이라고 쓴 것 같다. <멋을 안다>는 말과 <風流를 안다>는 말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지난날 몇 분의 한국적 美意識으로써 ‘멋’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을 詩人 趙芝薰은 「멋은 研究」란 논제로 심도있는 고찰을 보였다.<sup>5)</sup> 그의 견해를 보면

첫째 멋의 形態는 이를테면 멋의 現象이요, 둘째 멋의 表現은 멋의 作用이며, 셋째 멋의 精神은 곧 멋의 本質이다. 여기서 멋의 現象이 멋의 작용의 결과란 것과, 멋의 작용이 멋의 本質의 形式化임을 알았고, 동시에 멋의 本質은 멋의 形象을 떠나서 把握될 수 없음을 보았다.<sup>6)</sup>

하고, 멋이 어느듯 생활 일반의 理念으로 美的 範疇를 뛰어넘은 더 高次의 범주화로서 道の 경지, 聖의 가치로 파악하였다. 즉 멋은 특수미로서 眞의 가치, 美의 가치를 종합하고 넘어서 聖의 가치에 도달한 것, 美로 들어가 美를 벗어나는 ‘멋’은 ‘美’ 이상의 곧 善而美·眞而美이면서 또한 그대로 美의

3) 『三國史記』 眞興王 37年條, 조선사학회간(1928), p. 7(원문은 생략)

4) 鄭寅普, 위의 책, p. 254

5) 趙芝薰, 「멋의 研究」-한국적 美意識의 構造를 위하여-, 『韓國人と 文學思想』, 金鵬九의, 一潮閣(1964)

6) 趙芝薰, 위의 책, pp. 458-459

범주라고 했다.

鄭寅普나 趙芝薰이 모두 ‘國有玄妙之道’를 ‘風流’로 파악하였고 趙芝薰이 이 풍류를 곧 ‘멋’이라고 했다. 즉 멋의 내용은 이 風流道의 내용에서부터 淵源한다고 하면서 멋을 모른다는 것과 風流를 모른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했다. 洪思重은 어느 외국인이 <멋>이 무엇이나고 물어왔을 때 <멋>이란 ‘우아하고 세련되고 고상한 생활태도’라고 대답했다.<sup>7)</sup>

退溪(1501~1570)에게는 風流가 있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退溪가 朱子學을 공부했으나 그 氣稟은 朱子와 다르다. 옛부터 朱子는 剛毅하기를 程伊川과 같과 退溪는 溫和하기를 程明道 나아가서는 顔子와 같다고 했다. 退溪의 많은 文字에서 그의 고상한 생활과 온화하고 자상한 점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退溪는 風流’란 어떤 것인가? 먼저 詩文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風流’란 어휘가 든 詩歌로는 陶山十二曲 중에 한 수와 몇 수의 漢詩가 있다.

天靈臺 도라드러 玩樂齋 瀟灑한대  
萬卷生涯로 樂事 無窮하애라  
이듬에 往來風流를 닐어 不습홀고<sup>8)</sup>

위의 작품은 陶山十二曲 중 言學의 首章이다. 陶山書堂에 오르면 「玩樂齋」란 懸額이 있다. 谷口峯으로 들어가면 左右의 臺名이 天淵臺와 雲影臺이다. 聖賢의 萬卷書 속에서 그 道를 궁구하는 즐거움이 있다. 이 중에 ‘往來風流’란 무엇인가? 어떤 이는 <陶山の 山水>라고도 하고, 혹자는 찾아 오는 弟子로도 보았으나 崔珍源교수는 ‘賞自然’이라고 해석했다. 退溪의 ‘賞自然’(風流)은 儒敎精神에서 <自然調和의 成就>라고 하겠다.

둘째, 漢詩 중에서 ‘風流’의 어휘가 들어있는 작품을 뽑아 보았다.

娶勝亭 城中那得盡風流 水遠山長各自由 試問東亭收勝處 一尊堪勸故人留 <sup>9)</sup>	성중이 좋다한들 어찌 풍류를 다할소냐 물은 멀고 산은 높아 제마다 자유롭다 문노라 東亭 경개가 저기 저곳인가 한 단지 술 기울여 가는 벗을 만류하네
---	---

7) 洪思重, 『한국인의 美意識』, 風流와 멋, 傳藝苑刊, 1982, p. 59

8) 退溪의 陶山十二曲 중에 後六曲의 首章이다.

9) 增補退溪全書(1), 成大 大東文化研究院刊, p. 49

與諸君同登狎鳩亭後園

斷阜灑江勢欲驚	강가에 솟은 언덕 그 기세 달릴듯이
與君登眺暢形魂	그대들과 함께 올라보매 심신이 밝아라
浮雲遶嶽齊神嶽	성첩에 둘러 구름 높은 매와 가지런하고
落日低空近海門	낙일은 낮게 떠서 바다어구가 가까웠다
萬世終營槐穴夢	만세를 경영함은 개미구멍만한 꿈이요
一時感慨菊花嬌	잠시나마 느낌있어 국화알 술 향아라라
沙禽豈管人間事	모래 위 저 해오라기 세속 일을 관계하라
浩蕩風流無語言 <sup>10)</sup>	호호탕탕한 저 풍류는 아무말이 없구나

澗柳

一澗邊垂柳 濯濯風度 陶·邵賞好 起我遐慕一	
無窮造化春	봄의 조화가 무궁하니
自是風流樹	이렇게 풍류의 나무더라
手載兩節翁	도연명과 소강절 천고의 두 늙은이
長吟幾興寓 <sup>11)</sup>	흥취를 읊은 것이 몇 번이던고

위의 시 중에서 1) 盡風流, 2) 浩蕩風流, 3) 風流樹의 표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陶山十二曲의 往來風流이다. ‘盡風流’는 「娶勝亭」의 風景이요, ‘浩蕩風流’는 「狎鳩亭」의 勝景이고, ‘風流樹’는 「澗柳」의 樣姿이다. 이로써 보면 退溪의 風流는 自然美이다. 山水(現象)에 대한 表現(作用)이 眞의 가치, 美의 가치를 종합하고 넘어서 聖의 가치 경지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美的 內容으로서 美的 精神(本質)이다.

退溪의 詩에서 <성중이 좋다한들 어찌 풍류를 다할소나>(城中那得盡風流), <호호 탕탕한 저 풍류는 아무 말이 없구나>(浩蕩風流無語言), <이렇게 풍류의 나무더라>(自是風流樹), <이듬에 往來風流를 넣어드심홀고>(陶山十二曲 7번) 등의 形態는 世間物이면서도 脫世間的인 ‘멋진 現象’, ‘憧憬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德이 있는 선비로서 俗氣를 벗은 品格이라야 ‘멋지라’라든가 ‘風流스럽다’라고 느낀다. 退溪의 風流는 自然과 調和의 美를 동경하는 生活이다. 또 굳이 詩句에 ‘風流’란 文字가 없더라도 退溪의 「嶺南樓」詩를 보면 風流道를 만끽하고 있다.

嶺南樓

樓觀危臨嶺海天 南쪽 海天의 영남루에 이르니

10) 위의 책, p. 52

11) 위의 책, p. 104

客來佳節菊花前	나그네 온 때가 菊花 핀 가절이라
雲收湘岸青楓外	소상강 언덕인가 구름 걷히고 숲도 푸르고
水落衡陽白雁邊	형산 기슭인가 맑은 물에 흰 기러기
錦帳圍將廣寒月	비단 장막 드리운 廣寒殿 달밤
玉簫吹入太清烟	옥 통소 소리 太清烟에 들리구나
平生儘有騷人興	평생에 나에게도 騷人의 흥이 있어
猶向尊前踏綺筵 <sup>12)</sup>	술단지 앞 꽃방석에 즐겼노라

이 詩의 「嶺南樓」는 경남 밀양에 있는 누각이다. 뒷쪽 頷・結聯이야말로 멋진 風流의 作用이며 〈멋〉의 本質을 간직하고 있다.

비단 장막 드리운 廣寒殿 달밤  
 옥통소 소리 太清烟에 들리구나  
 평생 나에게도 騷人의 흥이 있어  
 술단지 앞 꽃방석에 즐겼노라

하고 退溪자신이 평생에 나에게도 風流(騷人興)가 있었다고 밝혔다. 廣寒殿에는 달밤이요 옥통소 소리 저 太虛에서 들리는 광경에서 ‘술단지 앞 꽃방석에 즐겼노라’ 함은 俗을 벗어버린 騷人의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陰翳와 憂愁가 없다.

셋째, 退溪의 日常生活이 가장 진솔하게 반영된 것은 편지이다. 子姪, 弟子 또는 交友에게 준 書簡 몇 편에서 ‘退溪의 人間像’(멋의 본질)을 찾아 보기로 한다.

退溪가 宋麟壽(1457~1547 : 그는 尹元衡, 李椿의 미움을 받아 벼슬을 그만두고 淸州에 은거 중 윤원형에 의해 사사된 분)의 동생 麟壽에게 보낸 答書에 靑松府使 李仲樑(龔岩 李賢輔의 넷째 아들)으로부터 초(燭) 네 자루를 선물 받았다. 그중에 두 자루를 송인수의 아들에게 보내어 그 아버지 제사에 쓰도록 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촛불로 평생의 마음을 밝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sup>13)</sup>

이번에는 親喪을 당한 李楨(字 剛而, 號 歸巖)이 지나치게 슬퍼하여 여윌었다는 말을 듣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당부하는 글을 보냈다.

12) 위의 책, 詩卷1, p. 47

13) 「與宋台叟 麟壽·(壬子)」靑松李公幹以小燭四柄爲行楨, 今以二柄呈上, 視至何如? 似聞肩公遺嗣, 尚在淸境, 然否? 何以存活? 二柄幸付其嗣, 比用於禰祭, 一明平生之心, 而秘之尤善, 『退溪全書』書卷9, p. 274

聖人は ‘효자에게 자식이 없게 되도록 상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말씀 하셨으니 이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효도를 다하지 못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겠는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시골의 아들들 중에 성품은 지극하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자 이러한 훈계를 내렸을 뿐이다.

그대의 평생 배운 바가 어떠하길래 이를 생각지 않고 몸소 그러한 일을 밟고자 하는가. 하물며 그대의 몸이 본래 허약하고 거기다가 쓸바귀의 독이 덧쳤음을 알고 있으니 만약 특별히 ‘건강만을 위해’ 마음을 쓰는 일이 없다면 ‘다소 몸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겠는가? 슬피울어서 극도로 피곤한데 다시 어리석은 정성으로 망녕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천 만번 빌고 바란다.<sup>14)</sup>

하였다. 또한 李楨과 며칠간 함께 있다가 보낸 뒤 편지에 작별의 섭섭함을 말하고 詩를 지어 보냈으니

君去春山誰共遊	그대가 떠난 봄산을 누구와 함께 노닐고
鳥啼花落水空流	새 울고 꽃은 떨어지니 물만 흐르는구나
如今送別臨溪水	이별하고 돌아와 시냇물에 이르니
他日相思來水頭 <sup>15)</sup>	다음에도 그대 생각나면 이 물가에 오리다.

와 같다.

또 鄭秋巒(1509-1561. 이름은 之雲)의 부음을 듣고 부조의 표시로 白紙 세 묶음을 보내면서 위장을 못하는 까닭을 적고 못내 痛惜해 했다.

알려주신 秋巒의 부음은 참말입니까? 이 사람이 급히 이렇게 될 줄이야! 사람의 삶이란 원래 든든하게 믿을 것이 못되지만, 이 노인은 평소에 슬 때 문에 병을 얻어서 오래 부지하지 못할 듯 하다고 하더니만, 이제 과연 그렇게 되어버리니 痛惜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략-

나는 병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몸이라서 그의 棺槨 곁으로 가서 땀하지 못하였으니 삶과 죽음을 달리하는 마당에 부끄러움이 더욱 심합니다. 白紙 세 묶음을 보내오니 그의 집에 전해주시고 아울러 병든 것이 부조하는 물건이라고 간절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위에게 위장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편지를 보내지 못하니 缺恨이 됩니다.<sup>16)</sup>

위에서 몇 수의 詩와 몇 장의 편지를 보았거니와 退溪의 風流는 ‘德을 바탕으로 한 調和의 秩序’였다. 人間愛가 없고서는 ‘風流’라고 할 수 없듯이

14) 앞의 책, 書卷22, p. 544(原文은 생략)

15) 앞의 책, 書卷21, 「與李剛而(壬戌)」, p. 526

16) 앞의 책, 書卷25, p. 12

退溪는 溫柔敦厚한 人品을 가진 人間愛가 풍부하였다.

退溪는 節友 중에도 유독히 梅花를 사랑하였다. 그것은 그의 친구나 문인들의 편지 가운데서 자주 梅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편지에 ‘嶺梅가 향기를 내뿜거든 때로 한 가지 보내 주시라’는 사언은 사 람으로 하여금 千里同襟의 뜻에 깊이 慨然함을 가지게 합니다. 이곳에는 今年 봄 기후가 매우 이상해서 四月에 이르러야 꽃들이 비로소 盛開하기 시작했 습니다. 그래서 梅花도 역시 그 地域과 時條의 조건에 따름을免하지 못했습 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가지고 梅花의 病處라 하기도 합니다만 나로서는 이 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梅花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sup>17)</sup>

退溪는 梅花를 좋아하여 「梅花詩帖」을 남겼고 혹은 梅花詩를 평하기도 하 고(答鳥川諸君), 臨終 때 이질로 설사를 하게 되니 梅花盆을 딴 곳으로 옮기 라고 하고 그 까닭은 「梅兄에게 불결하면 내 마음이 미안해서 그렇다」(於梅 兄不潔心自未安耳)<sup>18)</sup>라고 하였다. 이 얼마나 멋이 있는가. 퇴계의 梅花 애호는 至誠에 근본을 두어 至情에서 피어나온 말이다. 다음의 詩는 서울에 있을 때 고향 陶山의 梅花를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憶陶山梅

丙歲如逢海上仙  
丁年迎我似登天  
何心久被京塵染  
不向梅君續斷絃

병인년에는 바다의 신선을 만난 것 같았고  
정묘년에는 나를 만나 등천할 것 같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오래도록 서울 티끌에 물들어  
梅君을 향해 끊어진 줄을 잇지 못하는가

퇴계는 객지에서 벼슬하는 제자에게 ‘자네 고향소식이 그림지 아니한가 뜰앞에 있는 매화가지 하나를 꺾어 인편으로 보낸다’라는 이 至情이야말로 風流의 善而美요 眞而美이다. 퇴계는 梅花 뿐만 아니라 蓮도 구하고자 하든 차에 禹性傳(1542~1593)이 부쳐 준 蓮뿌리와 편지에 답하는 글에서

이즈음 蓮을 구해 심어볼까 하여 몇자 편지를 뒤쫓더니, 문득 勸問하는 편 지와 함께 연뿌리 약간을 부쳐주셨기에 새로 만든 연못에 심어도 될 듯합니 다.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sup>19)</sup>

17) 앞의 책, ①書卷10, p. 296(原文은 생략) ②外集卷1, 「梅花天惜太孤絶」詩의 小序, p. 549

18) 退溪言行錄 卷5 考終記

19) 앞의 책, 書卷31, 答禹景善, p. 131

하였다. 退溪의 自然愛好는 人間愛와 더불어 生活事이면서 학문의 窮理에 합치되는 일이다. 또 퇴계는 鄭士誠(1545-1607 字 子明. 號 芝軒)과 李德弘(1541-1596 字 宏仲. 號 良齊)이 音樂의 原理를 묻은 答書에서

보내신 글에 「理가 곧 禮이다」, 「淡(君子之交 淡如水)은 예가 발한 것이다」, 「和가 곧 情이다」, 「和란 情이 있으므로 이루어진다」…라는 몇가지 말들은 대략을 이해하여 비슷한 경지에 이른 것 같으나, 표현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sup>20)</sup>

하고 대체로 樂은 예로 말미암아 발생되기 때문에 「풍류는 소리가 맑다」(樂聲之淡)라고 말할 수 있다. 「예가 발한 것이 이(理)다」라고 할 때 ‘禮’자의 뜻은 이른바 天理의 節文에서의 ‘理’이다. 따라서 周濂溪의 樂論에서 말한(周濂溪의 註言) 것처럼 「淡이란 理가 발한 것이다」하면 옳지만, 보내신 글에서처럼 「淡이란 禮가 발한 것이다」라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

풍류 소리가 화락한(樂聲之和)것은, 인정이 화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註言에서 말한 것처럼 「和란 和가 있으므로 이루어진다」하면 옳지만, 보내신 글에서 처럼 「和란 情이 있으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sup>21)</sup>

「오늘의 音樂은 형상을 나타내는 것(形之)이다」, 「형상을 나타낸 것(形之者)과 형상(形)은 서로 비교되는 말이다」라고 한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미진하여 고쳤습니다. -「옛사람의 情은 和하되 잡된 것과 함께 섞이지 않고(不流) 그 樂이 형상하고자 한 것은 다만 和일 뿐이다」<sup>22)</sup>

라고 하였다. 이 글을 장황하게 이용한 것은 ‘風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陶山十二曲」의 跋文에서 지금의 詩는 옛날의 詩와는 달라서 가히 읊기(詠)는 하지만 노래(唱)하지는 못했다는 것도 짐작이 된다.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한 可否를 정리하면

〈可〉	〈不可〉
淡이란 理가 발한 것이다	淡이란 禮가 발한 것이다.
理를 말하여 禮의 理다	理를 말하여 곧 禮다
和란 和가 있으므로 이루어진다	和란 情이 있으므로 이루어진다
和는 情의 和暢이다	和가 곧 情이다

20) 만약 理를 말하여 〈예〉의 〈리〉라고 한다면 옳지만 〈리〉가 곧 〈예〉라고 하면 불가하다.

21) 만약 和를 말하여 「情의 和暢이라고 한다면 옳지만 곧 바로 「和가 情이다」라고 하면 불가하다

22) 앞의 책, 書卷35, 「答鄭子明士誠 李宏仲德弘」, p. 207

와 같다. 聖賢이 樂을 제정함에는 ‘正中’과 ‘仁義’로써 하였다. 오늘의 音樂이 流蕩하고 亂雜한 것과 옛날 音樂과를 비교한다면 옛날 音樂은 莊正·齊肅한 뜻에 근본을 두어서 ‘형상’(形之)을 나타낼 때 벌써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곧 ‘淡’이란 莊正·齊肅을 근본으로 하며 또한 내포한다. 風流에는 人間愛와 教養이 따른다. 퇴계는 〈和子中閑居十二詠〉 중에 「彈琴」이란 詩를 지었다.

彈 琴

先王作樂意尤深  
 天地中和發自心  
 鳳下南薰元盡美  
 鶴來東國別成音  
 平生我未專師學  
 此日君能古譜尋  
 好待明年山月夜  
 無絃琴和有絃琴

先王이 풍류를 마련하신 그 뜻이 깊은지고  
 天地의 中和之氣 스스로 마음에서 생겨나오는 것  
 봉황새 南薰殿에 들고 옛 곡조도 아름답고  
 학이 동쪽 나라에서 와 음률을 다르게 이루었도다  
 내 평생 전문하여 배우지 못했음을 아쉬워 했는데  
 그대는 오늘에 옛 琴譜를 찾아 내었도다  
 명년은 달밝은 밤 고요한 곳을 찾아서  
 탈줄 모르는 거문고이지만 한 번 뜯어 보겠노라<sup>23)</sup>

동양적 학문이 〈修身〉이라는 人格의 陶冶에 중심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교육부분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서 ‘禮·樂·射·御·數’라는 광범위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修身〉이라는 엄숙한 사실 속에서도 〈風流韻事〉라는 것이 결코 輕視되 것이 아니어서 〈詩·酒·琴·棋〉가 士流의 娛樂과 趣味의 대상이 되어도 不遜할 것이 없는 樣姿가 교양이다. 그래서 孔子的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든가 『士小節』 중에 ‘春秋暇日, 略具酒食, 集家中老少於一堂, 談說古傳五倫, 仍及勤儉, 治生改過, 懲忿之事, 酒微醺, 命童子起舞, 長者詠詩, 婦人勿嬉笑敬聽, 此何等氣像’云云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라고 매양 골 샌님으로만 지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이 사실이 趣味를 否認하지 안했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現代的 教養의 개념과도 비슷한 데가 없지 아니하다.<sup>24)</sup>

퇴계는 『言行錄』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밝혀

번잡하고 흥겨운데서 사람의 性情이 바뀐다. 내가 畝人으로서 있을 때 어느 잔치 자리에서 唱妓가 눈 앞에 있어서 문득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겼다.

23) 앞의 책, 卷3 詩1, 「彈琴」, p. 109

24) 李東英 撰, 『李源朝文學評論集』 ‘朝鮮의 教養과 教養人’(형설출판사, 1990), pp. 179-180

비록 흰색 욕망을 억제하여 구렁텅이로 빠지는 지경은 면했으나 이러한 기회가 바로 살고 죽는 갈림길인 것이다.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風流라도 教養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音樂을 風流라 하고 詩 짓는 것을 風月을 짓는다고 하거니와 이 風流·風月은 곧 自然과 調和의 美를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儒·佛·道의 風流도 「正中」과 「仁義」(사랑과 옳음)에 근본하였다. 교양을 갖추지 못한 虛浪·浮華性 또는 頽唐·纖弱性的 弊害는 풍류의 墮落된 現象이다.

퇴계는 風流韻事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의 風流는 德을 바탕으로 한 自然과 調和의 秩序요 溫柔敦厚한 人間愛를 갖추었다. 態度姿勢에 있어서 남에게 傲慢하다는 印象을 주지 않고, 얼굴 표정을 참되게 함으로써 남에게 信賴感을 갖게 하고, 말씨를 조심함으로써 남에게 비루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은 風流의 基本이니 君子가 아니면 風流를 모를 것이요 風流를 아는 사람이면 그가 곧 君子이다.

앞에서 보인 「鸞湖碑序」에 ‘집에 들어서는 孝를 다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忠誠하라’는 孔子의 뜻과 ‘無爲한 일에 處하여 말 없는 教를 행하라’는 老子의 말과 ‘모든 惡을 짓지 말고 모든 善을 만들어 행하라’는 釋迦의 教化가 모두 ‘風流’를 하는 기본이다.